



한밤 막차에서 본 일입니다. 70대 가량의 할머니 한분이 허겁지겁 올랐습니다. 손에는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용케도 앞자리 좌석 중 남아있던 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노인이 앉자마자, 30대 후반쯤의 운전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맨 뒷좌석으로 가요."

할머니는 기사를 흘끔 쳐다보고는 못들은 척했습니다. 그러자 기사 목소리는 더 커지고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끝자리로 가. 냄새 나는 주제에 앞에 앉으면 손님이 안탄단 말이야. 빨리 가!"

여전히 노인은 못들은 척했고 이번에는 기사의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왔습니다.

"쌍, 뒤로 가라는데 정말 안갈꺼야. 아니면 내려."

내리라는 말에 놀랐는지 노인은 비닐봉지를 꼭 움켜쥐고 뒷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사 양반, 사과하세요. 노인도 승객인데 반말 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거예요?"

"그 노인 동냥하는 거지입니다. 오줌을 싸서 냄새가 나 승객들이 전부 피합니다. 그러니 뒤로 가라 할 수밖에 없지요."

운전기사의 말투는 고객을 대하는 정중한 그것이었습니니다.

"아니, 아무리 동냥 다니고 옷에서 냄새가 난다 해도 그 노인에게도 인격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분이 아무런 불평이 없었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운전기사는 법규를 들먹였습니다. 술취한 사람이나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은 태우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것....

듣다 못해 이번에는 또 다른 젊은이가 나섰습니다.

"당신도 늙은 부모가 있을 것이고 머지 않아 늙을 게 아녜요. 저분도 사람이 예요. 최소한의 사람대우는 해야 할 것 아니요."

이어 여기저기 승객들의 동조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는 마침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버스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나는 순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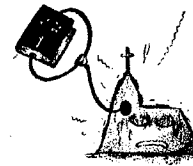
- 중앙일보 기사중에서 -

남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그것이 우리가 향하는 갈보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일 4:11)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4권 1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급지	2002년4월 28일
☎520-9464/021-292-1639.☎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연변총각 천국 일기- 성경

건강, 이상없습니까?



"항상 맛썩으로

진단 받아야 합니다"

"고저 저희 천국에서는 성경10번 읽어가지고는 성경 보았던 소리도 못합니다.

고저 100번 읽으면 '고놈 이제 성경 읽기는 좀 하겠구나' 함다. 한 200번 읽었다 싶으면 '고놈 성경 공부 시키면 좀 이해하겠구나' 하고 의심은 해봄다.

우리 뒷집에 새로 천국에 온 사람이 성경을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다가 천사한테 끌려가서리 성경인물 빙고게임하다 욕실라게 혼나고 다시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안함다. 요전엔 성경 600번 읽은 권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성경외우다 글씨하나 틀려 고저 무자게 혼났음다.

그런데 어느날이었음다. 예수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누구냐'며 하늘이 떠나가라 칭찬하시는 것이였음다. 나는 그래서 그사람이 성경을 '한 1000번은 읽었나보다' 생각했음다.

아니였음다. 그는 성경을 이제 겨우 한번 읽고 집에 가던 길에 사고가 나서 천국에 온 신입이었음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 물었음다.

'성경에 대해 이야기 해보거라.'

그러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였음다.

'성경은... 고조..... 사랑입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쓰다듬으며 '성경 제대로 안다'며 칭찬하시는 것이였음다. 내래 1000번 읽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 한적...들은 적이 없었음다. 천국에서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음다."

엄마가 딸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큰 사람이 넓게 기도할 줄 안다
만일 그가 복을 받을 사람이 못되면
그 복이 네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광고를 다 믿지 마라
울적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광고하는 맥주 한 잔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이미 세상은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79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1(시 28)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83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정덕수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6:12-19(신98)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제자와 무리"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278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 이
* 헌 금 기도 Offera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4,5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안내
28일	정덕수	노은숙	김종건, 박기원	박정자, 정희자
5일	최재학	박병민	박병민, 박일영	박일영, 이광희
12일	권용일	박상옥	사카시다, 양경배	사카시다, 최기향
19일	김경숙	박일영	유광진, 윤형권	양경배, 김동숙
26일	김교섭	박정자	이광희, 이재영	최재학, 김경숙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오후 6시

◀ 교 회 소 식 ▶

- 오늘은 '이삭줍기' 봉헌주일
*Silver Coin으로 모아진 헌금은 2명의 결식아동(필리핀, 태국)에게 보내집니다
- '등 록 교 우 성 경 공 부' 8기(성령론) 세 번째 모임
*일시: 월요일(29일) 저녁 7:30. 교회
- Tax Refund를 위한 헌금증명서 발급: 필요하신 성도께서는 재정부에 신청바랍니다
*재정부: 김종건, 김영길, 이재영 집사
- 제1 남선교회 월례회(예고): 오늘 예배 후 One tree Hill에서 신입회원 환영회로 모입니다
- 성경을 배웁시다"수요성서강해":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30. 교회
- 아기 "윤다미"(윤형권, 신영화 집사 딸): 탄생 후 처음 교회에 온 날입니다
- 경로잔치(예고): 남녀선교회에서 아버지 주일 맞이 '경로잔치'를 갖습니다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일자: 5월 6일(월)
- 결혼: 서동완, 유 순 성도. 5월 4일(토). 오후 4시. 교회



"매일 마다
가슴 두근거리는 행복이 늘어나기를
깜짝 놀랄 기쁨이 많이 생기기를..."
하나님의 큰~ 사랑 받으세요.

- 추워지는 겨울: 의자에 방석이 준비되지 않아 더 추위를 느낍니다.
방석이 준비 될때까지 가정에서 방석 1개씩 기증바랍니다.
- 교우소식: 김경구 집사, 사업차 한국 출장(24일 출국)

(가을의 끝자락에 서서 단발머리 곱게 빗어 내렸던,
여드름도 보배였던 학창시절의 시 한수 실었습니다)

가을의 기도 - 김현승 -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